



제목	콘스탄티누스의 니케아 공의회 개최의미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대구사학회(대구사학 70권)
발행일	2003. 2. 28.
저자	김차규
출판도시	대구
페이지수	157-194
ISBN 또는 ISSN	1225-903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콘스탄티누스의 니케아 공의회 개최의미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기존 논의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저자는 니케아 공의회 개최의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의 함의를 주장한다.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니케아 공의회는 부활절 날짜 논쟁을 정리하고 배교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하며 사모사타의 파올루스와 사벨리우스와 도나투스파 문제를 확정짓고 아리우스의 주장과 아리우스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종교적인 관점 외에,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한 다양한 이유를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입장과 제도적 개혁의 관점에서 찾는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한 정치적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콘스탄티누스는 국가 권력의 기독교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권력 외에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둘째,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 콘스탄티누스는 공의회를 수도에 인접한 니케아에서 개최하고 교회가 아닌 황궁의 중요한 곳을 장소로 택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공의회 의제가 결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니케아 공의회 개최 이유를 제도개혁을 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경제, 군사적 요지인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고 행정개혁과 대관구장 개혁과 군대개혁을 통해 기존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